

의식의 각성이 전부다

| 오쇼 라즈니쉬 | 손민규 옮김 |

아무리 고귀한 덕을 드러내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이 공허하다면, 성자처럼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해도 내면이 무의미하고 부패하다면, 그것은 목숨의 연장에 불과하며, 이것을 깨어버리는 것은 의식의 각성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오늘 당신은 각성과 의식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행동에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살인, 강도, 도둑질도 각성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을 때 한해서만 잘못이라는 말씀입니까?

비각성unawareness이 유일한 죄이며, 각성이 유일한 덕이다. 비각성의 상태가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행동, 그것이 죄악이다. 각성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행동, 그것이 덕이다. 그대가 깨어 있다면 살인은 불가능하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폭력은 절대 불가능하다. 강간, 도둑질, 고문 등의 행위는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대의 내면이 비각성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 어둠을 틈타 온갖 적이 침입한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은 도둑이 피해갈 것이라고 붓다는 말한다. 경비원이 깨어 있다면 도둑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면 도둑은 그 집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는 불 꺼진 집이다. 일상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기계처럼 움직인다. 이른바 호모 메카니쿠스Homo mechanicus다. 그대는 명목상으로만 인간이다. 이 명목만 없다면 그대는 잘 숙달된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 잘못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든’이라고 말하는 점에 유의하라.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대의 덕도 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미덕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덕행 뒤에는 커다란 예고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깨어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대의 성스러움도 헛되다! 그것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연마된 것이다. 그것은 소박함과 겸손함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신성에 대한 경험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신성에 대한 경험은 에고가 사라졌을 때에만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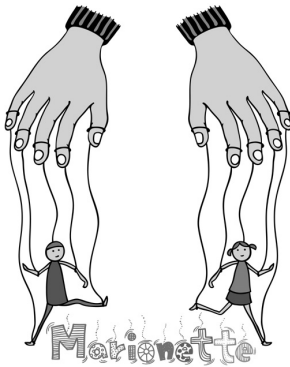
성자처럼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해도 그대의 내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잘 것 없다. 그대의 내면은 무의미하고 부패했다. 이것은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목숨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때 그대의 죄만 죄악이 아니다. 덕 또한 죄악이 될 것이다. 그대의 부도덕성만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도덕성 또한 부도덕이 될 것이다.

나는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 각성이 없는 한 그 모든 것이 허위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는 그대를 사이버 인간으로 만든다. 그대를 해방시켜주지 못한다. 그대를 속박한다.

오직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각성이 만능열쇠다. 각성은 존재계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 각성은 주의 깊은 의식으로 매순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 자신을 의식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식하는 삶, 순간에 감응하는 삶, 이것이 각성이다. 이때 그대는 거울처럼 된다.

피타고라스는 그대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내면의 거울에 그대를 비추어 보라.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라. 그러면 이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옳다. 그 행위는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때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 행위는 우주 전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상황, 그대 등 모든 것이 거기에 연루된다.

전체성으로부터 행위가 탄생한다. 그것은 그대의 행위가 아니다. 그 행위는 그대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결정이나 생각, 그대의 인격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뿐이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산책길에 뱀을 만났다고 하자. 그대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다만 내면의 비춤이 일어날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순식간에 펄쩍

뛰어 물러선다. 이 ‘순식간에’라는 말에 주목하라.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대는 즉각 뱀에게서 물러선다. 나중에 나무 밑에 앉아 쉬면서 그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자신이 잘 처신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대가 행한 행위가 아니었다. 저절로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대, 뱀, 죽음의 위험, 보호 본능.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얽혀있다. 그 상황 전체가 그대의 행위를 유발시켰다. 그대는 다만 매개였을 뿐이다.

이제, 이 행위는 아주 적합한 행위다.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신이 그대를 통해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전부다. 전체가 부분을 통해 행위 하는 것, 이것이 덕이다. 이때 그대는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된다.

진실로 이것은 아무 걸림이 없는 행위다. 일단 한 번 일어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대는 이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행위를 머릿속에 담고 다니지 않는다. 이 행위는 그대의 심리적 기억 속에 각인되지 않는다. 그대 안에 아무 상처도 남기지 않는다.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을 만큼 즉흥적으로 일어난 행위였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카르마를 남기지 않는다. 그대 안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카르마를 남기는 행위는 사실은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 생각에서 나온 반응에 불과하다. 이때 그 선택과 결정은 그대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각성이 아니라 비각성에서 나온 행위다. 이때는 모든 행위가 죄악이다.

내게는 각성이 전부다. 나는 그대에게 각성을 가르친다.

플라톤은 교육과정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굴의 비유를 들었다. 지하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다. 그들은 실재 세계의 환영적인 그림자 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 중의 한 명이 사슬을 풀고 빛의 세계로 나온다.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눈부신 태양 때문에 눈이 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삶만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눈이 멀 것 같은 느낌과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의 동굴과 그 환영적인 세계를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사물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그는 환영의 베일을 통해서만 보는 다른 사람들, 비실재의 세계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대가 깨어나면 그대의 삶이 변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즉시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까지 변형되도록 도움을 주



는 것이다. 일단 각성의 빛을 보게 되고, 무의식의 동굴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실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실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실재에 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빛을 알게 되면 그대는 그 빛을 나누어 주고 싶게 된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 다른 죄수들을 풀어주고 싶어한다. 이것이 유사 이래 모든 스승들이 해온 일이다. 이것이 피타고라스가 했던 일이다. 그는 그림자의 동굴에서 벗어났다.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눈이 부시다. 눈이 무척 아프다. 이것이 성장의 고통이다. 처음에는 다시 어둠의 동굴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크게 일어난다. 어둠의 동굴은 그대에게 익숙하다. 그곳은 아주 편안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실재를 보게 되면 그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대는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섰다. 그대는 빛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어떻게 빛을 흡수하는지 배워야 한다. 실재계는 지복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체를 경험했을 때 그대는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대에게 왜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지 알고 있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여전히 화가 일어나고 있다.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욕망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 그대는 여전히 그대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한 하나의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 깨어 있음이 그 열쇠다. 그대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모

든 방법이 소용없는데 어떻게 깨어 있음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러나 열쇠는 항상 작다. 열쇠는 크지 않다. 아무리 큰 자물쇠도 작은 열쇠 하나로 열 수 있다. 그렇다면 깨어 있음이 만능열쇠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을 지경에 처한 악몽을 꾸다고 하자. 물론, 그는 대항해서 싸운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서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도무지 탈출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사방에서 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든다. 이젠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진땀을 흘리다가 악몽에서 깨어난다. 깨어난 후에도 여전히 호흡이 가쁘고 진땀이 난다. 그러나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고 그는 웃음을 터뜨린다. 아무 문제도 없다. 꿈이 사라졌다. 그 적들과 무시무시한 칼은 실재가 아니었다. 그는 구원을 청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림자의 세계였다.

잠을 깨자 모든 꿈이 사라졌다. 꿈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은 그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이다.

분노는 그림자다. 그림자와 싸워서 덕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탐욕은 그림자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각성이 일어난 다음에도 남는 것, 그것이 실체다. 의식의 각성을 이룬 사람들은 분노나 탐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들이 분노나 탐욕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단순히 그들은 분노나 탐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부터 깨달은 상태였던 말인가? 그 모든 사슬과 속박이 한낱 꿈이었던 말인가?”


사람들이 붓다에게 ‘분노와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과 섹스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을 때마다 붓다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깨어 있으라.’

붓다의 제자인 아난다는 혼란을 느꼈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문제를 안고 온다. 그런데 붓다의 처방은 항상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아난다가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제각기 다른 병 때문에 당신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오고, 어떤 사람은 섹스 때문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 때문에 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오는데 당신의 처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붓다가 말했다.

“그들의 병이 다른 것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이 자리에 모인 2천 명의 산야신들 모두가 잠이 들어 꿈을 꾸다면 2천 가지의 꿈을 꿀 것이다.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그대의 꿈을 나누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꿈은 매우 개인적인 현상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꿈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남편이나 부인도 꿈을 공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2천 명의 사람들은 2천 가지의 꿈을 꿀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 모두가 내게 와서 어떻게 꿈을 없앨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처방은 항상 똑같은 것이다. 깨어나라! 이것이 나의 처방이다. 나의 처방은 항상 똑같다.(끝) 

- 이 글은 『피타고라스1』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오쇼 라즈니쉬** | 1931년 12월 11일 인도의 쿠티와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으며, 남들로 부터 주어지는 지식이나 신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고자 했다. 21세에 깨달음을 얻은 오쇼는 사가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자발푸르 대학에서 9년간 철학교수로 지냈으며 그 사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기성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전통적인 신념에 의문을 던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또한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현대인의 신념 체계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오쇼는 특유의 '다이내믹 명상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대인들은 과거의 낡은 전통과 현대생활의 온갖 욕망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깊은 정화과정을 통해 무념의 이완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과 구도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은 30개가 넘는 언어를 통해 600권이 넘는 책으로 발간되었다.

오쇼는 1990년 1월 19일에 자신의 몸을 떠났다. 푸나에 있는 그의 대규모 공동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메카가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상, 치료, 창조적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해마다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있다.

역자 | **손민규** | 1962년 생. 인도로 건너가 오쇼의 제자로 입문한 후에 2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오쇼 문하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로 알려진 '키란 바바'와 12년 동안 친교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영혼의 테러리스트로 알려진 유지 크리슈나 무르티와의 만남을 통해 큰 감화를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명상 서적 전문 번역가로 일하면서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법구경』, 『금강경』, 『떠도는 자의 노래』, 『마음을 버려라』 등 50여 권의 명상 서적을 번역 소개했다. 현재 명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명상나라(Zen.co.kr)'와 '오쇼코리아(oshokorea.com)'를 운영하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피타고라스 I

저자 **오쇼 라즈니쉬** | 역자 **손민규** | 출판사 **젠토피아** | 정가 25,000원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수수께끼의 인물 피타고라스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흔히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철학자이자 종교가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며 정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삶에 대한 여러 일화들 중 진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록들은 고작 몇가지에 불과하다. 이 책에는 이 시대의 살아 있는 철학자 오쇼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타고라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확한 행적보다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메시지에 많은 독자들이 놀랄 것으로 예상된다. 오쇼의 마력에 의해 피타고라스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의 전달자로 부활한다.

